

영암 월출산 경관지구 유채꽃 대축제 개막

오는 24일까지 천황사 지구·군서 유채밭 일대서 NON-GMO 유채가공제품 우수성 전국에 홍보도

제2회 영암 월출산 경관지구 유채꽃 대축제가 지난 15일 개막을 알렸다. 영암농협이 주최하고 영암군과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0만평 유채꽃 향연, 영암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천황사 지구와 군서 유채밭 일대에서 10일간 펼쳐지며 개막식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열렸다.

영암농협축제공제추진위는 이번 축제 개최 배경에는 월출산 경관지구 조성사업 홍보로 영암을 알리고 장기화한 코로나 시국에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물하기 위해 개최를 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관 농업으로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농산물판매나 먹거리장터 등 참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영암농협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생산될 NON-GMO 유채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영암 유채의 브랜드 구축과 대외판촉에 적극 활용하여 축제와 더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포석으로 일한다.

개막식은 방역 규정에 맞춰 천황사 주차장에서 식전 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등이 MBC, 유튜브 등에 방송됐으며, 천황사 유채 경관지구에 바람개비, 솟대 등 포토존 및 유채사진전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늘리고, 영암 농특산물판매와 푸드트럭 그리고, 곳곳에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 조랑말 먹이 주기 체험 등도 열려 입과, 귀도 즐겁게 할 것이다.

부대시설로 곳곳에 그늘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돕고 영암군 행사 방역 규정에 맞춰 방역 인원 투입과 방역물품(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준비하여 행사의 안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도상 조합장은 "그동안 코로나 취소되었던 축제가 올해 기지를 펴다"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



러 제약상황에서 진행되는 축제지만, 오히려 꾸밈없는 단일면적 최대 유채밭이 그 자체로 최고의 축제장이 될 것이다"며 "영암 월출산 경관지구 유채꽃 축제에 찾아오는 행락객의 일상에 활력과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농협 축제추진위는 지난 2019년 제1회 월출산 유채꽃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1년 두 차례 취소된 후 올해 대외 홍보형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영암 천황사 지구와 군서에 식재한 유채는 다른 지역의 경관 유채와는 다르게, non GMO 식용유채이며, 유채 종자 판매와 국산 유채 유로 가공생산되어 다양한 판로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촌관광자원으로서 영암의 관광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6차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확정...3년만에 재개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 결정

전남 지역의 대표 봄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와 관련,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취소됐던 함평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조건부 승인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의 승인 조건은 ▲행사장 취식금지 ▲실내 전시관 공조시설 전문가 검토 ▲최대 수용가능 인원 대비 사전예약 인원 수정 ▲동시 수용인원 초과 시 주변 관광지 분산 유도방안 ▲어린이 대상 체험시설 분산 배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퍼다라는 주제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제2기 천사섬 행복 부부학교 개학

신안군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5쌍 30명을 모집하여 8회기에 걸쳐 제2기 천사섬 행복 부부학교를 개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부학교는 4월부터 12월까지 토크 및 흥매화 꽃 나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부부성격유형검사, 부부갈등 대화법, 부부성교육, 음악 치유법, 리마인드 웨딩, 서로 마음나눔(편지쓰기 등), 부부 추억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 개선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안군 가족센터에서는 행복 부부학교를 통해 서로 인내하며 살아왔던 갈등들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알아가며 무더진 결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부가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의 가치를 확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지친 부부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완화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내 e-모빌리티 부품 공용 생산 공장 설립 협동조합 설립으로 e-모빌리티 기업 영광에 뚝친다

영광군 대마산단 내에 e-모빌리티 부품을 공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선다. 군은 2021년부터 e-모빌리티 부품을 대마산단 내 기업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97억 규모(국비 97억, 지방비 100억)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대마산단 내 e-모빌리티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품 공용 시생산 지원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시생산이란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생산하기 전에 시험 삼아 부품을 만들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e-모빌리티 산업은 새로운 산업영역이기에 신규산업 진입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군은 관내의 e-모빌리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여 부품 수급을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출, 성형, 도장 등의 설비들을 대마산단 부품 공용생산 공장 내에 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e-모빌리티 중소기업들이 모여 한국 e-모빌리티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협동조합

은 2021년부터 영광군, 전남도, 한자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3개 e-모빌리티 중소기업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22년 4월 15일 창립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공장이 설립되고 내부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e-모빌리티 기업들이 기존처럼 중국 부품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제작한 부품으로 e-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에 따른 부품 성능의 불안정성 및 품질저하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품 해외 수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수출 시 중국산 제품과 대결할만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생산 지원공장이 설립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구축되면 약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파악되며, 수요조사 결과 지원공장 설립 후 관외의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대마산단으로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부품의 국산화와 시생산 지원공장 이용을 위한 관련 기업의 대마산단 입주에 따라 영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행사 방문 추모객 지원

목포시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방문 추모객 편의에 힘쓰고 있다.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과 다짐행사인 '기억, 책임, 약속'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목포시향, 목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추모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9명과 3개 동 직원을 1일 6명을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시향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내부스의 방역물품 지원, 휠체어 비치, 방문객 안내, 교통 정리 및 주차 안내, 이동형 임시화장실 설치, 쓰레기 처리 등 안전과 편의에 노력하고 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추모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